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음악수업 비평 양상

김 향 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음악수업보기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연구 대상은 G교육대학교 2학년 112명으로, 예비교사들은 음악 수업을 보고 수업 비평문을 작성하였으며, 수업 비평문은 근거이론의 개방코딩으로 범주화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들은 음악적 관점보다는 교육학적 관점으로 음악수업을 관찰하며, 음악적 관점과 교육학적 관점, 교사, 학생을 개별로 분리하여 보는 분절적 관찰의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의 음악적 경험 기반에 의해 형성된 오개념과 편견이 다수 드러났으며, 대상 수업 교사를 모델화하여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예비교사들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했으며, 교과교육학의 중요성 및 좋은 수업보기를 통한 교수 능력 강화, 교과전담제의 확대 및 정착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수업비평, 교수내용지식, 수업보기, 근거이론, 개방코딩, 범주화

차 례

I. 서 론

II. 수업비평

I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 참여자 | 2. 대상수업 |
| 3. 수업 관찰 및 비평문 작성 | 4. 자료 분석 |

IV. 연구결과

- | | |
|--------|---------|
| 1. 범주화 | 2. 빈도분석 |
|--------|---------|

V.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2012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00002)

**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연구교수

I. 서론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고, 교육이나 교사의 역할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는 교육에 있어 중요한 담론 중의 하나로, 어느 때부터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그 만큼 교사의 역할이 교육의 질과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사는 반드시 수업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수업 전문성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수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지원체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수활동 측면에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방법(수업기술)의 능숙(고재천, 2011, 19; 윤근영, 2007, 81; 진성진, 2007, 181)함이 강조되며 이는 각과 교육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교수내용지식(PCK)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이 습득해야하는 교수내용지식은 <상황지식: 학습자이해, 내·외적 환경>, <교과내용 지식: 내가 아는 것>과 <교수법 지식: 가르치는 것>이다. 음악수업과 관련한 교수내용지식에 있어, 교과내용 지식은 ‘음악에 대한 지식’, ‘수업에 필요한 연주 기술’, ‘교육학과 관련한 포괄적 지식’을 말하며, 교수법 지식은 음악 내용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적합하고 유용한 교수 방법 및 매체의 활용, 상황지식은 학습자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그에 따른 음악적 내용 및 방법의 재구성, 수업과 관련한 모든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교사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실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상황적 맥락을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실천적 지식, 그리고 수업 컨설팅, 수업 비평등과 같은 자기 성찰과 함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메타적인 자기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등 교수내용지식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초등교사의 경우, 모든 교과의 교수내용지식을 획득하기란 현재의 예비교사 양성 제도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고자 교과 전담교사제도가 25년여 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음악교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음악과 교수내용지식이 부족한 담임교사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빈번하게 지적 되고 있다. 초등 예비교사의 경우, 더더욱 온전한 교수내용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는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학습자와 관련한 상황지식이 전무한 상태이며, 더구나 실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적 맥락을 읽는 것은 실제 수업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매우 유용하다. 즉, 문제점을 진단해 내는 데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사람의 수업을 관찰하고 자신이 아는 만큼을 드러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비교사들이 음악 수업에서 본 내용은 그들의 음악적 능력의 정도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적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내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음악적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자신이 상황적 맥락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교사의 수업 맥락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보는지 알아내는 것은 예비교사들의 음악과 교과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내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출발점이 되고 수업비평은 문제점을 진단해 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21C의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한 관점의 변화도 함께 가져왔다. 수업을 ‘학생의 행동 변화를 산출해내는 의도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이 과거의 전통이었다면, 이에 맞서 ‘수업은 예술이다’라고 보는 것이 변화하고 있는 관점이다.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한 인간경험의 복합체로서 공학적 체계화와 과학적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는 자신만의 독특한 자원과 상황적 맥락을 씨실과 날줄로 엮어 수업을 창조해 내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수업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예술성을 갖는다(Anderson,

1991; Eisner, 1983; Highet, 1951; Vallance, 1975). 작품으로서 수업의 예술성은 표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이상의 무엇, 또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이 수업을 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일으켜 과거 전통적인 양적 관찰이나 수업 평가, 장학 등의 방법에 회의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업 비평’이 교과 교육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아이즈너(E. W. Eisner)의 교육비평(educational criticism)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는 수업 비평 공동체 안에서 독자적으로 변모하고 발전하는 자생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엄훈, 2011b p.25). 아이즈너는 ‘수업을 관찰하는 것’을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과 수업 현장에 대한 지식, 수업 내용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수업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며, 이를 ‘교육적 안목’이라 지칭한다. ‘교육적 안목’을 드러내는 수업 비평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각 교과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업 비평문을 연구 도구로, 예비교사들의 ‘음악 교육적 안목’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Ⅱ. 수업비평

‘비평’은 원래 음악, 미술, 연극, 문학과 같은 예술 작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자신의 관점 또는 견해를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기반 한 ‘수업 비평’은 수업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고 예술 비평에서 전문가가 작품에 대해 비평하듯이 수업 전문가가 수업을 보고 수업에서 드러난 특징, 주제, 생각할 점 등을 독자들이 읽기 쉽게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즈너가 말하는 ‘교육적 안목’은 바로 교육 현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특징을 섬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 때, 교육적 안목을 갖춘 교육전문가는 수업의 독창성, 예술성을 읽어낼 수 있고 수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교육 현상이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비평문

을 통해 드러냄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들이 작성한 수업 비평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유함으로써 비평을 읽은 사람도 교육적 안목을 같이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혁규(2004)는 이를 ‘해석의 순환’이라 하고, 수업 비평 읽기는 수업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독자들이 수업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들의 수업 비평은 전문가들보다는 수업 방법이나 접근법, 교육과정 등 수업을 보는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비평은 전문가들의 그것과는 달리 비평문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안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음(강성우, 2011; 김정은, 2011; 엄훈, 2011; 최은아, 2012)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교사교육의 방향 설정이나 방법 등을 마련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수업 비평의 유용성은 수준이 다른 교육자들의 눈으로 통한 안목의 다양성을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의 비평을 통하여 수업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깊게 보고,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수업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으며, 예비교사들의 비평을 통해서도 수업을 보는 이들의 교육적 안목을 읽어 이들만의 특징, 또는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교과별 수업 비평 연구는 10여 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음악교과의 경우 많은 연구의 성과물이 산출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찾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수업 비평과 관련된 연구들은 학위논문이 30여 편, 학술지 논문이 40여 편, 그리고 6편 정도의 단행본이 있다. 이들을 연구 주제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수업비평의 개념 및 필요성 등 수업비평의 이론적 탐색에 해당하는 연구(강현석, 2007; 김일구, 2008; 이혁규, 2007, 2010a, 2010b; 임현정, 2010; 추갑식·강현석, 2011)들이며, 둘째는 각 교과별 측면에서의 수업 비평 방법 연구나, 연구 방법으로서 비평을 사용한 연구,

혹은 그 결과 전문가 또는 예비교사의 교육적 안목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강성우, 2011; 김경은, 2011; 김재빈·정정인, 2010; 고문수, 2012; 나귀수, 2009; 류현중, 2004; 신헌재, 2005; 심영택, 2010; 엄훈, 2012; 이재호, 2009; 이수미, 2012; 정재찬, 2010; 최은아 2012)등 이다. 세 번 째는 온라인 수업 비평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업 비평 공동체 또는 학습공동체,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된 수업비평과 관련한 연구(김진희 외 2010; 신지혜, 2011a, 2011b, 2011c)들 이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두 번째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국어과의 비평문 쓰기주제를 바탕으로 수업 사례 연구가 다수 있으며, 사회, 과학, 도덕, 체육, 미술, 수학, 영어 등 대다수의 교과에서 관찰 및 비평의 방법, 현직 교사나 예비교사들의 안목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술교과의 경우, 다른 교과보다도 수업 비평과 관련한 논문이 다수인 것을 볼 때, 예술 작품을 다루는 교과목이며, 활동에서도 작품을 감상하는 비평 활동이 교과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으로서 연구가 보다 활발한 듯하다. 체육교과의 경우도 ‘인문적 체육 관점에서의 민첩성 도전 활동 체육수업의 비평(고문수, 2012)’, ‘체육수업의 연구와 비평(고문수, 2011)’, ‘체육수업비평(유정애, 2005)’ 등 논문이나 저서의 제목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꽤 활발한 수업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음악교과에서는 1편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편에 그치고 있음은 현재까지 수업 비평에 대한 담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 문화가 조성되지 않고 있음으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일깨운다.

음악교과의 수업 비평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민주(2011)는 그의 학위논문에서 수업 분석법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업 비평을 제시하였고, 존 버거의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장 보드리야르의 ‘시물라크르’, 자크 데리다의 ‘해체’ 와 같은 미학적 관점을 수업 비평의 틀로 삼아 각각의 관점으로 음악 수업을 비평하였다. 음악수업을 관찰함에 있어 미학적 관점의 비평적 실천은 음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다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최은아(2012)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음악 수업 비평관점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자의 수업을 음악과 예비교사들에게 관찰하게 한 후 수업 비평문을 작성하게 하고, 탐구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비교사들의 비평 범주 및 비평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수업설계, 수업환경, 수업실행, 학습자 경험 4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되었고, 초등예비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 수업실행과정 중 교수학습과 학습 자료에 주로 주목하며, 수업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음악 수업관 및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과 깨닫게 된 점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류미해(2012)는 수업 비평을 통해 본 초등 3학년 합창 지도 사례를 연구하였다. 먼저, 수업 비평에 대해 개괄하고 합창 수업 사례를 관찰한 다음 전문가의 식견을 기반으로 하여 수업을 비평하고 실천적 제언을 하고 있다. 세 편의 음악교과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교육적 안목을 살펴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전문가들의 수업 비평문 읽기, 또는 체계화된 수업비평의 절차와 원리를 적용하여 수업을 들여다봄으로써 수업 비평은 수업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수업 비평의 이러한 교육적 특성은 수업 비평이 새로운 교사교육의 수단으로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G교육대학 예비교사들로, 현재 2학년 재학 중인 컴퓨터과 21명, 실과과 30명, 미술과 33명, 음악과 28명으로 총 112명이다. 이들은 교육대학 재학 중, 음악교과와 관련 음악교육 I, II, III을 공부한다. 이 교과목을 바탕으로 2012년 11월 현재 피아노실기(2), 시창청음(1), 국악(장구, 단소)(1), 음악이론(1)을 수강하였고, 본 연구자의 음악

교육(1)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며, 이들 중 9명은 1학년 2학기 예술영역의 선택(2) 중 음악과 관련한 세계음악여행, 판소리의 이해, 컴퓨터로 음악 만들기, 동요가창법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3학년 때에 음악교육 III에 해당하는 국악(장구, 소금)(2)을 수강하게 되어 있고, 4학년 1학기에는 예체능 실기선택으로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중 한 과목(2)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된다. 음악을 선택할 학생은 난타, 전래동요와 민요 실기, 교실악기, 노래 만들기, 디지털피아노양상블 중 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2012년 11월 셋째 주 ‘수업보기’의 시점에서 피아노실기, 시창청음, 국악, 음악이론, 음악교육을 이수 또는 이수 중 으로 이와 관련해서 총 6학점을 이수했으며, 앞으로 졸업이전 까지 음악 실기 선택을 하지 않은 한 국악(장구, 소금) 한 과목, 2학점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연구 대상자들 중 음악과 심화 학생의 경우, 다른 교과 심화와 달리 음악적 능력이 구별되게 뛰어나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음악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다른 과와 특별한 규정 없이 배정되며 심화내용 또한 현재까지는 2학년 2학기에 피아노 실기만 더해진다는 것 외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본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2. 대상수업

가. 대상 수업 교사

대상수업은 2012년 청주교대 교육연구원 주최 <창의적 수업 사례 공모전>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대구 O초등학교 J 교사의 5학년 음악 수업이다. ‘자연의 소리’라는 제재를 가지고 캐논 형식을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이다. 이 수업을 실시한 교사는 교육대학에서 음악 심화를, 교육대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였고, 교직경력이 14년째이며, 현재 음악전담 교사를 맡고 있다. 자신의 음악수업을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제재곡들을 단순히 제재곡 익히기에 급급하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생각하며, 한창 교육계의 화두인 창의·인성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본 수업과 관련한 자신의 수업이야기에서,

“교과서에는 달랑 한 페이지인 ‘자연의 소리’라는 제재로 보통 이럴 경우 자연의 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란 물음과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 얼른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제재에 캐논이라는 연주형식을 적용해보았다. 이 제재는 5학년 제재이고 캐논이라는 형식은 4학년에 살짝 언급된다. 동네 한 바퀴 라는 제재쪽 옆에 캐논 감상곡이 나오면서 캐논 연주형식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학생이 캐논을 연주하는 것이 아닌 점에 착안 5학년에서 한 번 연주해보도록 해보았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연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임을 모두 알 것이다. 자연의 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에서 찾을 수 있는 소리로 확대하여 다양한 말리듬을 찾고 신체로 연주하고 나중에는 악기를 적용해보는 것이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어도 캐논이라는 형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봄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력 또한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 본다.”

즉, 교과서의 제재인 자연의 소리를 소재로 말리듬을 찾고, 신체 동작하고, 악기를 적용하여 캐논을 연주해봄으로써 캐논에 대한 음악적 개념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내용보다는 교육과정 중심, 교과서는 재료의 의미로 보면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 될 수 있다.

나. 수업 과정

대상 수업이 이루어진 음악실은 보통 교실의 1.5배 정도의 크기에 교사가 음악전담을 맡으면서 바닥을 장판으로 교체하여 아이들이 신체활동하고 악기 연주하는 등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구조화시켰고, 해당 수업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둥글게 둘러앉은 형태로 시작한다. 아래 <표 1>은 J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표 1> 대상 수업의 수업 활동내용 및 진행 과정

활동	구체적 내용
수업열기	신체동작 리듬 찬트로, 교사의 ‘ 짹짹 짹 짹 ’에 학생이 반아서 ‘ 짹짹 짹 짹 ’, 교사의 (무릎 치면서) ‘ 탁탁탁탁탁탁 ’에 학생은 (무릎 치면서) ‘ 탁탁탁탁탁탁 ’로 답하는 형식이며 리드찬트에 변화를 주면서 활동 함
리듬 만들어 돌림노래 하기	가을 계절에 맞는 단어, 단풍잎, 알록달록으로 4/4박 리듬 만든 후 ‘ 단풍잎 단풍잎 알록달록 알록달록 단풍잎 ’을 무릎-손뎌-오른손 엄지펴기-왼손 엄지펴기 신체동작과 함께 처음에는 다같이, 두 모둠, 4모듬으로 나누어 돌림노래하기
학습문제 찾기	학습 목표; 자연의 소리를 캐는 형식으로 연주하기
말리듬 만들기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계절, 계절에 적합한 소리), 리듬카드를 보며 리듬꼴을 만들고 말로 표현하기
각 모듬별 활동	6명을 한 모듬으로 4모듬을 정한 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맡게 하고 각 계절에 관련되는 소리들로 리듬꼴 만들기 파릇파릇 뽕(봄)/ 철썹 철썹(여름) /알록달록 바스락 부스럭(가을) / 뽕드득 뽕드득(겨울)
각 모듬별 (직소)활동	한 모듬을 2명씩 3팀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계절끼리 8명이 모여 한 팀이 되며 각팀에는 이전 모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맡았던 2명씩 8명이 모임. 교사는 신체 표현팀, 악기팀, 말리듬팀을 지정 해주고 각 팀에 적합한 표현 및 연주 방법 의논하여 연습하기
연주하기	팀별 연습 후 전체 캐는 형식으로 연주하기. 교사는 까혼으로 기본박 연주 1팀: ‘파릇파릇 뽕/철썹 철썹/알록달록 바스락 부스럭/뽕드득(말리듬) 뽕드득 2팀: _____ 파릇파릇 뽕/철썹 철썹/알록달록 바스락 (악기) _____ 부스럭/ 뽕드득 뽕드득 3팀: _____ 파릇파릇 뽕/철썹 철썹/알록달록 (신체표현) _____ 바스락 부스럭/뽕드득 뽕드득
학습 정리하기	교사를 중심으로 다시 동그렇게 앉은 다음 “오늘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본 거였어요?”묻고 답을 들은 후, “캐논은 뭐뭐이다”에 답하게 하자 아이들은 반복, 돌림노래, 생명, 협동...로 답함. 교사는 “캐논은 반복이다, 돌림노래이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자연의 소리다”로 마무리 함

3. 수업 관찰 및 비평문 작성

연구 참여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업 보기는 2012년 11월 셋째 주에, 각기 다른 심화과정 학생들 112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음악과 교육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였다. 수업 비평 활동지를 나눠주고 J교사 수업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수업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수업 비평이나 활동에 대한 사전 지도가 없었고, 수업 동영상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교사에 대한 사전 지식, 또는 어떤 설명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대상 수업을 본대로, 느낀 대로 감상문의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활동지의 앞면에 수업을 보는 중에 사실들을 기술하는 부분(기억을 위하여)과 수업에서 제일 인상 깊은 점, 수업교사에게 묻고 싶은 점, 그리고 이 수업을 한마디로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과 같은 문항을 제시하여 수업 비평과 관련한 보편적인 기술 내용을 안내함으로 비평문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수업 동영상을 보는 중, 또는 동영상 시청이 끝나고 나서 앞면을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활동지의 뒷면은 앞면의 내용을 기반으로 감상문을 쓰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일주일 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음악수업 보기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비평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추출 및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자료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개방코딩을 실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메타분석 하였다.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의 하나로 실제 자료 속에서 개념들을 발견하고, 반복적인 비교, 검증을 통해 가설(연역적)을 세우고 자료들의 진술을 통합(귀납적)하여 실제 현상을 설명해 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자료 분석 방법은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을 거쳐 과정을 분석함으로 마지막 단계에

서 이론을 정형화한다. 근거이론의 전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자료들 속에서 개념들을 발견하고 반복적인 비교를 통한 가설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좀 더 많은 결과물들의 축적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 중 첫 단계인 개방코딩(open coding)만을 적용하였는데, 질적 자료들의 개념을 식별하고 비슷한 결과 및 사건들을 분류하여 한데 묶는 범주화 작업으로 수업 비평의 과정에서 자료의 기초적 분석에 사용되기도 한다.

먼저, 수집된 비평문에서 단순히 수업의 과정들을 나열하거나, 시간상으로 전개한 내용은 제외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과정을 조망한 기술에 대해 단어별, 의미별로 분석해가는 행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별 수업 비평지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엑셀 파일에 기입하였으며 이후 그 사례 수들을 계산하였다. 112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똑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의 사례들을 모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들을 추출하고 비슷한 개념(예를 들어, 복잡한 기악합주 함, 합주 수업을 신선하게 함, 악기를 사용 지루함 줄임,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기악수업)들을 모아 하위범주(기악활동)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단계로 하위 범주들의 요소 중 공통적인 요소(예를 들어, 신체표현활동, 창작활동, 기악활동, 리듬 익히기 활동)들로 다시 묶어 중범주화(음악활동)하였고, 중범주로 구성된 요소(예를 들어, 음악활동, 음악적 개념지도, 음악적 상상력/창의력)들을 다시 묶어 최종적으로 대범주(음악교육적 관점)화 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153개의 개념, 37개의 하위범주, 17개의 중범주, 8개의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념 및 하위범주, 중범주, 대범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고, <개념>에 제시된 내용은 지면 관계상 대표적인 사례들만 적었다. 이 때, 범주 간 중복되는 개념의 경우, 가능한 예비교사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였는지와 관련 중점적 의도에 기반 하여 분류하였으며, ‘오개념’,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관련 몇 사례에 대해서는 음악적 관점과 중복을 허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의 두 범주는 초등 예비교사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 따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

영된 범주화라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정확성은 양적 연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기반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주화된 자료들의 개념, 하위 범주, 사례 수의 빈도 분포를 통하여 나타나는 수업 비평 양상의 특징을 메타분석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범주화

자료 분석의 방법에 따라 개념을 추출하고, 하위범주, 중범주, 대범주를 도출하였다. 다음은 초등 예비교사들의 중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별 대표되는 구체적 비평 내용이다.

<표 2> 개념 및 하위범주, 중범주, 대범주의 내용

개념	하위범주	중범주	대범주
다양한 활동(손, 무릎, 발)으로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 익힘, 신체/악기/말의 표현구분은 어렵지 않을까,	신체표현 활동	음악활동	음악교과 관점
직접 곡을 만드는데 관심과 참여도 높음, 조별로 리듬팔 창작활동 활발	창작 활동		
복잡한 기악, 합주 수업을 신선하게, 악기를 사용 지루함 줄임,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기악수업	기악 활동		
쉬운 언어표현으로 리듬학습 두려움 없앴, 박자카드를 활용한 리듬팔 익히기, 말리듬으로 돌림노래 자연스럽게 유도	리듬 익히기 활동		

음악 이론의 지도방법, 음악 수업 진행 방법,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 이렇게/노래지도는 어떻게 하나, 활동을 통하여 이론적 내용을 익히고 있음	이론 지도	음악적 개념 지도	일반교육학 관점
음악지도의 두려움이 몰려옴, 음악수업의 두려움이 좀 사라짐	음악지도의 어려움		
보편적 음악 수업과 학생들의 느낌의 차이,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보통 수업과 다른 모습이 독특하고 새로움	일반적 수업과의 차별성	상상력/창의력	
생활과의 관련성, 자연과 관련되는 언어 표현, 소재 친근함, 소리를 다양하게/자유롭게 표현	창의적		
학생들이 학습주체가 됨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주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교사의 조력자 역할을 잘함, 안내자 역할 인상 깊음	상호작용		
두서없고 제멋대로 인 듯하나 내용과 질이 대단함, 반복적인 활동으로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함	목표	수업 설계	
도입-전개-정리 분명함, 도입부분 인상 깊음, 정리단계 확인 좋음, 수업의 흐름이 매끄러움, 학생들 제제시 수업 흐름 끊김	수업 전개 및 과정		
적극적 통제 아쉬움, 모든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움, 어수선했던 분위기	통제	교수기술	
게임 활동의 동기 유발, 신체활동 동기 유발 인상 깊음	동기유발		
주의집중 방식 좋음, 나만의 주의 집중 방식 원함	주의집중		

어려움 겪는 학생들 배려, 개별지도 이루어지지 않음	개별지도	교수지식	
모둠학습이 잘 이루어짐, 협동학습의 직소가 좋음, 모둠의 재구성이 자연스러움	협동학습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통합교육이 바람직함, 신체활동과 말하는 활동이 많아 통합교과적 성격	통합교육		
매체의 활용 없음, 학습 교구들 준비 걱정, 교과서 없음	학습도구		
자신감을 갖도록 동기 부여, 칭찬의 빈도수 높음, 칭찬은 좋지만 비교를 통한 방식은 부적절함	동기부여 및 칭찬	수업 운영 능력	교사
교사의 직접적 신체 표현, 학생들과 원에 같이 둘러앉음, 학생과 같은 시선에서 소통함,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 참여도 높임	교감과 소통		
지속적 피드백, 숙련된 기술자, 리더쉽, 복사용으로 주의집중 잘 리드함	수업 기술		
학습주체로 흥미롭고 즐거워 보임, 반복으로 지루하고 참여도 떨어짐, 지속적 활동에 지친 모습이 아쉬움, 활동 형태에 따라 소외되는 모습 보임, 수업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 보기 좋음	흥미도/참여도	학습자들의 수업 연행	학습자
직접 연주 및 가사 짓기를 활발히 함, 교사의 관여 없이 학생들 스스로 하는 모습이 인상적	자발적/직접적 활동		
많은 칭찬은 자신감을 갖게 함,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함	자신감		

훌륭한 교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지 못함을 반성, 음악수업을 편히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함	자기반성	자기반성 및 교사로서 의 계획	자기 성찰
카리스마 있는 교사를 본받음, 좋은 교육법을 전수받고 싶음, 주의집중 방법 배우고 싶음	수업 교사 모델링		
열정 가득하고 즐거운 음악 수업을 만듦, 내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실행할 계획임, 나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키움, 아이들이 온 몸으로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이론과 활동이 조화가 되는 수업 필요	음악 교사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함,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교감하는 태도 가짐, 통제방법을 배우고 관찰함, 나만의 주의 집중 방법을 만들고 싶음, 책만 읽고 발표만 시키는 것이 아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음, 흥미가 지속되는 수업을 만들고 싶음	바람직한 교사상		
책상에 앉아 악보를 보고 선생님 반주에 노래를 따라 부름, 발성연습, 노래 한 곡을 지속적으로 부르고 또 불러 지겨움	가창수업	일반적인 음악수업의 형태	자신의 음악적 경험
선생님이 반주를 못해 아이스크림이나 티나라 등 플래시 프로그램으로 수업함	멀티미디어존 수업		
음악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는 형태, 노래를 부를 때 틀리면 다그쳐서 진행했던 수업	부정적 기억	수업 속 기억	
노래와 율동이 있는 시간, 시간이 금방 가는 즐거운 수업	긍정적 기억		

책상, 의자가 없고 등글게 앉는 교실 신선함,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 조 좋음, 모둠활동에 적합함	음악실 구조	물리적 환경	학습 환경
자유로운 배치로 소란스러움, 원으로 둘러앉으면 교사와의 소통에서 소외 되는 아이가 있을 것 같음	자리 배치		
악기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음, 다양 한 악기로 기악수업이 잘 이루어짐	악기	수업자료	
음악적 개념이 이런 수업 형태로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활동은 많은 반면 배우는 내용은 적음, 학생들에게 이 론적 요소는 필요 없는가, 설명보다 활동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효과적 인지 궁금, 활동위주의 수업에서 이 론적 측면은 어떻게 알려주는지 의 문, 학생들에게 이론적 요소는 필요 가 없었는지 궁금	이해와 활동의 통합개념	교육과정	오개념
이 수업을 통해 어떤 음악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인지 궁금함, 목표 구 현에 좀 더 수업 활동 비중을 둘 필 요가 있음, 정확한 개념정리 없이 넘 어가면 목표 구현이 어려움, 수업 목 표와 다른 활동에 초점이 맞춰짐, 돌 림노래 대신 캐논이란 용어를 사용 함이 적절치 않음	수업의 목표 이해		
어떤 점이 좋아서 이런 지도 방법을 쓰는가, 여러 가지 방식은 직접 생각 한 것인지, 예체능 과목은 아이들과 함께 논다는 교사의 마음이 중요, 다 시조를 재구성해서 돌림노래 한 이 유는 무엇인가	.	지도 방법	
악기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아쉬 움,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겨웠을 것임	.	장면 오역	

2. 빈도분석

개방 코딩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의 수업보기 양상은 음악교육 관점, 일반 교육학 관점, 교사, 자기 성찰, 오개념, 학습자, 개인적 경험, 학습 환경 8가지 대범주로 구분되었다. 대범주에 따른 중범주는 음악교육 관점에 ‘음악활동’, ‘음악적 개념 지도’, 그리고 ‘상상력/창의성’, 교육학적 관점에 ‘교수-학습 주체’, ‘수업설계’, ‘교수기술’, ‘교수지식’, 교사는 ‘수업 운영 능력’이, 자기 성찰은 ‘자기반성 및 교사로서의 계획’, 오개념은 ‘교육과정’, ‘지도방법’, ‘장면오독’이, 학습자는 ‘학습자들의 수업 연행’, 개인적 경험은 ‘음악수업의 형태’, ‘기억 양상’,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은 ‘물리적 환경’, ‘수업 자료’로 분류되었다.

대범주별 개념 및 사례 수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범주별 개념, 하위 범주, 사례 수 빈도 분포 표

대범주	음악 교육 관점	일반 교육학 관점	교사	자기 성찰	오개념	학습자	개인적 경험	학습 환경
하위 범주 수	8	11	3	4	3	3	4	2
개념 수	32	30	28	16	14	11	9	7
사례 수	65	127	50	19	21	19	21	13

1) 활동별, 주제별 분절적으로 음악 수업 보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의 수업 비평의 경우, 교과별 특징 구분 없이 수업 계획-수업 실행-수업 평가, 그리고 학습환경 이나 학습자 등의 범주들로 구분되거나(강성우, 2011; 최은아, 2012), 각 교과에 있어서 의사

소통, 교사의 발문, 과제의 적절성 등의 주제별 분석(나귀수, 2009)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특징에 비해 본 연구는 개방 코딩 결과, 음악교육 관점, 일반 교육학 관점, 교사, 학생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수업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여 맥락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활동, 또는 주체 하나 하나를 분절적으로 보는 특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즉 음악수업은 음악+교육+교사+학습자+환경 등이 어우러져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임에도 예비교사들은 음악 따로, 교육 따로, 교사 따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교육적 측면을 하나로 엮는 기술이나 능력이 미약함을 볼 수 있다.

2) 일반교육학적 관점에서 음악 수업 보기

초등 예비교사들은 음악교육 관점으로 ‘음악활동’, ‘음악적 개념 지도’, 그리고 ‘상상력/창의성’ 범주가, 일반 교육학적 관점으로 ‘교수-학습 주체’, ‘수업설계’, ‘교수기술’, ‘교수지식’과 같은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들은 음악교육 관점보다 일반 교육학적 관점에서 수업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분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교육 관점과 일반교육학 관점의 사례 수 및 하위 범주 수를 비교 해보면, 음악관점에 대해 언급한 사례수가 65인 반면 일반교육학적 관점은 127로 상대적으로 일반교육학적 관점의 언급 사례가 많았으며, 하위 범주도 8개, 11개로 교육학적 관점이 많았다. 다만 음악교육 관점에서의 개념 수는 개인의 음악적 경험이나 오 개념과 관련한 내용을 중복해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교육학적 관점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악 교육적 관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 의문이다’, ‘~ 궁금하다’, ‘~ 같다’의 표현에 반해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 인상깊다’, ‘~ 좋았다’, ‘~ 이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이 많은 수업을 보는 데에 있어 일반 교육학적 관점에 사고의 중심이 있으며 훨씬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양상 중 다른 하나는 J교사의 음악 수업에서 닦고 싶은 부분은 음악적 능력이나 음악 수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교사의 주의 집중 방식(북)’이 바람직하였다’, ‘나도

나만의 주의집중 방식을 만들어야겠다'로 일반적인 수업 운영 기술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일반 교육학적, 일반적 수업에 관련되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 대상 수업 교사를 기준으로 음악수업 보기

수업 교사 '수업 운영 능력'의 하위 범주에 '동기부여 및 칭찬', '교감과 소통', '수업 기술'이 포함된다. '교사'는 하위 범주 3, 개념 수 28, 사례 수 50으로 음악교육 관점과 일반 교육학 관점 다음으로 많이 논의되는 비평 내용이다. 이 대상 수업에서 교사는 예비교사들의 선행적 경험을 끄집어 내어 비교하거나 회상하게 하는 역할, 즉 대범주의 <예비교사들의 음악적 경험>에 영향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예비교사들에게 '교사모델'이 됨으로써 '자기반성' 및 '음악교사상', 그리고 미래의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 같은 <자기성찰>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 수업 교사를 자신의 음악 수업관과 비교한다거나 비판하는 사고의 인식 과정 없이 곧 바로 교사모델로 삼음으로서 자신의 음악 수업관을 드러내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양상인데, 이는 예비교사들 자신의 음악 수업관 자체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예비교사에게 있어 '좋은 수업 보기' 또는, 바람직한 음악수업(교사)은 음악 수업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데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4) 오개념을 바탕으로 수업보기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 및 음악지도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동영상의 수업 장면 자체에 대한 오독이 하위범주로 구성되는 오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에게 이론적 요소는 필요 없는지 활동으로만 수업이 끝났다"라든가 "활동 위주의 수업에서 이론적 측면은 어떻게 알려주는지 의문이다"와 같이 활동과 이해영역이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수업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교사의 설명이 없어서 목표 구현이 안 되었다거나 이론적 측면이 소

홀했다는 비평을 하였다. ‘지도방법’에 있어서도 “다시조를 재구성해서 돌림노래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거나 “어떤 점이 좋아서 이런 지도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하였는가”와 같이 조를 재구성하는 직소와 같은 지도법 적용은 캐논의 형식을 익히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왜 이런 지도법을 적용하였는지와 같은 당황스러운 질문,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 방식은 직접 생각한 것이지, 아니면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지 궁금하다”와 같이 지도 방법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음악수업 보기의 양태와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수업 비평문을 자료로 하여 분석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첫째, 예비교사들은 음악수업을 관찰함에 있어 음악적 관점보다는 교육학적 관점 중심으로 보며, 음악적 관점과 교육학적 관점, 교사, 학생을 개별로 분리하여 보는 분절적 관찰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수업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통합되어 수업 계획과 실행 및 평가 등 총체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단계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또한 음악수업임에도 음악적 관점보다는 교육학적 관점을 보다 중요하게 관찰하는 양상을 드러냄으로서 음악적 능력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과거 초·중·고 음악수업의 음악적 경험 기반과 이때 형성된 음악교과와 관련한 오개념 또는 편견을 바탕으로 수업을 관찰하였다. 즉 교육대학 2년여 동안의 음악적 경험은 그들의 오개념과 편견을 교정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학년에서의 국악 수업만을 남겨둔 연구 대상자에게 음악지도와 관련한 오개념의 교정 및 편견 제거를 언제,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느냐는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자의 수업에서도 음악과 교육과정, 지도 방법과 관련,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오개념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경험 지식이 매우 깊게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도하는 데에도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이 연구에서 대상 수업의 교사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비교 관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예비교사들에게는 교사모델로서의 역할과 함께, 자기반성 및 바람직한 음악교사 또는 교사상을 정립함과 같은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 이는 실질적 경험이 많지 않은 예비교사들에게 음악 교과의 교수내용지식을 형성함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실적으로 직접 수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예비교사들에게 잘 설계되고, 이를 유창하게 진행해 나가는 유능한 교사의 수업을 보는 것은 자기 나름의 성찰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박영예(2009)는 예비교사들의 교수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예비교사들이 수업에 참고할 수 있는 수업 동영상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고 무엇을 성찰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안목을 기르는 것은 앞으로의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된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 중 음악심화가 아닌 타 교과 학생들에게 음악수업은 쉽지 않다. 또한 그들의 음악적 능력을 높게 요구하거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음악교과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할 수도 없다. 다만, 부족한 음악적 능력을 가진 예비교사가 초등학교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음악 수업은 전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이에 대한 논의 및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한 단시일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바이지만, 가능한 한 교과교육학 관련 학점과 시수를 늘려 교과 내용학을 통해서 확장된 음악적 능력을 잘 엮어내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관찰을 통하여 교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좋은, 그리고 다수의 수업 동영상을 제공하고, 수업을 보는 구체적인 방법 및 비평 절차

를 익혀나가는 과정이 포함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음악심화 과정을 거친 교사라는 전제하의 초등학교 음악교과 전담제의 확대 실시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교과 전담을 맡는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각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교사들이 배치됨으로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음악심화 예비교사, 혹은 현직 교사들의 수업 보기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며,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며, 초등 예비교사의 음악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우 (2011). 수업 비평문에 나타난 초등영어 예비교사들의 교육적 안목 탐색. 영어영문학 연구, 제 53권 3호. 21-46.
- 강현석 (2007).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내러티브에 의한 수업 비평의 지평과 가치 탐색. 교육과정연구. Vol. 25, No. 2. 1-35.
- 고문수 (2011). **체육수업의 연구와 비평**. 한국학술정보.
- 고문수 (2012). 인문적 체육 관점에서의 민첩성 도전활동 체육수업의 비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 12, No. 1. 1-19.
- 고재천 (2011). 효과적인 초등교사의 특성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인식과 교육신념과의 관계. 초등교육학연구, Vol. 18, No. 1. 1-22.
- 김경은 (2011). 사회과 예비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비평. 교과교육학연구. Vol. 15, No. 3. 711-735.
- 김동현 (2011). 일반학생에서 학생선수로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 18, No. 1, 79-90.
- 김민주 (2011). 음악수업비평의 미학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 김일구(2008). 교실수업에서의 비평이론. 영미문화. Vol. 8. No. 2. 31-52.
- 김재빈 · 정정인 (2010). 초등학교 교사의 과학 수업 비평관점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 30. No. 8. 1084-1096.
- 김진희 외 (2010).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비평: 교사 배움 공동체 사례. 중등교육연구. Vol. 58. No. 3. 333-355.
- 나귀수 (2009).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수업 비평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학교수학. Vol. 11. No. 4. 583-605.
- 류미혜 (2012). 수업 비평을 통해 본 초등 3학년 합창지도 사례연구. 음악교육공학, Vol. 14, No. 2. 99-117.
- 류현중 (2004). 학교 현장 사회과 수업 담론에서 수업 비평의 기능. 사회과교육연구. Vol. 11. No. 2. 99-122.
- 문경숙 (2009). 초등학교 음악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탐색. 이화음악논집, Vol. 13, No. 1. 91-133.
- 신지혜(2011a).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비평 공동체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Vol. 19. No. 2. 71-97.
- 신지혜 (2011b). 학습공동체 이야기-수업비평 이야기. 역사와 교육. No. 3. 215-224.
- 신지혜 · 이혁규 · 엄훈 · 정정인 (2011c). 교사의 자기 주도적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온라인 수업비평 시스템 구축. 한국초등교육. Vol. 22. No. 2. 127-145.
- 신헌재 (2005). 국어 수업 관찰과 비평의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No. 27. 5-20.
- 심영택 (2010). 수업 비평적 글쓰기 방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Vol. 39. 379-402.
- 엄 훈 (2011a). 온라인 수업 비평 시스템을 활용한 비평적 실천 사례 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2011 하계학술대회. 교사의 자기 주도적 교수역량 강화: 방법과 시스템. 21-34.
- 엄 훈 (2011b). 지식으로 수업 보기, 그 관점과 방법. 수업 비평의 눈으로 수업보기: 2010년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청주교대교육연수원 · 교육연구원. 55-68.

- 엄 훈 (2012). 수업 비평 수업의 사례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No. 50. 359-385.
- 유정애 (2005). **체육수업비평**. 서울: 무지개사
- 윤근영 (2007). 초등학교사의 수업 전문성 탐색을 위한 이론적 고찰. 초등교육학연구, Vol. 14, No. 1. 81-97.
- 이수미 (2012). 한국어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관찰 이야기를 통한 수업 비평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Vol. 92. 447-470.
- 이숙정 · 이경아 (2007). 특수교육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이론과 실제. 정신지체연구, Vol. 9, No. 1. 123-147.
- 이재호 (2009). 초등학교 도덕과 수업비평의 한 해석. 초등도덕교육. Vol. 31. 117-140.
- 이혁규 (2004). 질적 연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Vol. 7, No. 1. 175-210.
- 이혁규 (2007). 수업 비평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탐색적 논의. 교육인류학연구, Vol. 10, No. 1. 155-185.
- 이혁규 (2010a). 수업 비평의 방법과 활용: 자전적 경험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Vol. 18. No. 4. 271-300.
- 이혁규 (2010b). 수업 비평의 개념과 위상. 교육인류학연구. Vol. 13. No. 1. 69-94.
- 임현정 (2010). 성찰과 비평의 개념에 기초한 수업보기. 초등교육학연구. Vol. 17. No. 1. 105-128.
- 정재찬 (2010). 수업 비평적 관점을 통한 중등 국어 수업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Vol. 39. 467-504.
- 진성진 (2007).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초등학교사의 자질 탐색. 초등교육학연구, Vol. 14, No. 1. 181-195.
- 최은아(2012). 초등 예비교사의 음악 수업 비평관점에 관한 연구. Vol. 29, No. 3. 173-194.
- 추갑식 · 강현석(2011). 내러티브에 근거한 수업 비평의 방법과 실천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 11. No. 1. 391-414.
- 나귀수 (2009).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수업 비평의 특징에 대한 연구, 대

- 학수학교육학회지 <학교수학>, Vol. 11. No. 4. 583-605.
- Anderson, D. W. (1991). *Creative reaching: Education as science and art*. Hollistic education review. 4(1).
- Eisner, E. W.(1983). The art and craft of teaching. Educational Leadership. 40(4), 4-13.
- Highet, G. (1951). *The art of teaching*. Greated Britain: Butler and tanner Lte.
- Juliet C. & Strauss A. (2009).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3ed*. 근거이론. 신경림 외 공역 서울: 현문사.
- Kathy Charmaz(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Methods in Social Justice Research*. Norman K. D & Yvonna S. L. Eds. CA: SAGE Publication.
- Lyn Richards & Morse J. M. (2007). 질적연구방법. 신경림 외 공역. 서울: 현문사.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신경림 · 김미영 공역. 서울: 현문사.
- Strauss, A. L. & Corbin, J. (1990).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 신경림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 Vallance, E. (1975). *Aesthetics criticism and curriculum description*. Ph. D. Dissertation, School of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ABSTRACT

Articulating Aspects of Music Lesson Criticism of Pre-Service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Kim, Hyang-J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ticulate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music classes of pre-service teachers in the elementary level, observing specific music lessons. 112 participants were currently enrolled in G university of Education and they were mostly sophomores. All these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observe specific music lessons and wrote class critiques. The collected data from this study were analyzed with Grounded Theory which included categorizing the data with the specific themes by using opening coding. The cod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in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 revealed that when pre-service teachers observed and analyzed music classes, they paid more attention to the general pedagogical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musical contents knowledge. These participants tended to dissecting all components of music education into a general pedagogy, music, teacher, and student while they were observing and analyzing music lessons. These fragmented pedagogical knowledge and their past experience of music lessons led them to developing misconceptions and prejudice. At the same time, this study was also shown that pre-service teachers had attempts to doing self-reflection of the music lesson through modeling a teacher

who taught the music lesson that they observed.

A researcher was able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ing music curriculum and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music classes which was enhance music teachers' capabilities for teaching by observing good music lessons and which expanding and settling Subject Dedicated System in Music Education.

key words: Class Criticism, 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Observing Music Lesson, Grounded Theory, Open Coding, Categorizing

투고일: 2013년 5월 20일, 심사(수정): 6월 15일(7월 5일), 게재 확정일: 8월 12일